

본 총평은 201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실시한 온·오프라인 모의논술에 참가한 전체 응시자에 대한 총평입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각 문항별 해설과 본 총평을 참고해서 2015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통문항 총평

본 모의논술 공통문항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논제에 충실한 답안이 높은 성적을 받았다. 즉,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혔는지 그리고 두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들을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비판하였는지를 체크하였다. 아울러 답안에 군더더기나 비문 혹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없는 답안이 좋은 답안으로 선택되었다.
2. 너무 안전한 논술들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제시문을 단순히 반복하여 정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 물론 제시문에 충실해야 하지만, 논지를 따르는 선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 같다.
3.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와 <나> 두 제시문의 차이점을 논할 때, <다>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는 확장편향의 단점을, <나>는 집단사고의 장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제시하면, <다>를 가지고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틀을 잡은 뒤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4. 전체적으로는 제시문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미흡함을 드러냈다. 제시문의 어구나 표현 이외에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여 비교, 대조해서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어법과 어휘력에 대한 훈련을 주문하고 싶다. 가독성이 있는 매끄러운 문장이라야 논지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논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하게 요약하는 능력이다. 우수한 답안지로 선택된 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능력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 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글을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 문제가 요구하는 관점을 잘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단락 간의 관계를 매끄럽게 연결시켜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하다.

인문계열문항 총평

본 모의논술 인문계열문항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문 논술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일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을 이해하고 비교·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제시문 <가>의 ‘나’는 소비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을 하고, <나>의 ‘직장인’은 실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계발과 시간 관리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전반부는 이 둘이 가지는 일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충실하게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타인의 배려에 의해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일의 의미라고 하는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태도를 평가하는 문제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출제의도와 다른 답안이 상당수 있었다. 즉 <다>의 입장인 배려와 존재의 인정을 <가>와 <나>에 적용하거나 둘 중 하나는 긍정적,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답안이 많았다.
2. 출제의 의도에 충실하려면 일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를 평가하여 모두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한다. <가>가 가지는 소비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 추구는 <나>가 보이고 있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모습과 서로 다르지만, <다>의 관점에서는 이 둘 모두 일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해야 한다.
3. 그 외에도 단락나누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답안과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한 답안도 상당수 있었다.

자연계열문항 총평

이번 모의논술 자연계열문항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제 [2-1]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제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 높은 성적을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논제 [2-1]에서 요구하는 700±70자 분량 답안을 채우지 못했다. 이는 논제에서 요구하는 <가>와 <나>의 규칙성 발견과정에서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고 <다>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결정론에 대한 비판, 귀납법에 대한 비판, 지역적 결정론,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부터 규칙성을 찾는 것 등 <나>를 비판하는데 필요한 주요관점들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나>에 대해 단편적인 비판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2. 논제 [2-2a]는 초등학교에서도 다루고 있는 선분의 비율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수열과 수열의 수렴에 대한 개념을 근거로 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는 논제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황금비를 구하고 제시문에서 언급한 수열의 비가 이 황금비로 수렴하는 것을 보이거나, 황금비를 계산하는 식과 수렴하는 수열의 비가 같은 형태인 것을 보이면 된다.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에서 언급한 수열의 관계인 $a_n = a_{n-1} + a_{n-2}$ 를 기술했으나 이를 활용하여 a_{n+1}/a_n 이 황금비로 수렴하는 것을 보인 학생은 많지 않았으며 황금비를 계산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3. 논제 [2-2b]는 논리적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논제 [2-2a]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풀 문제이다. 하지만 4번째 날에 새로 소문을 들은 사람의 수가 80일 때 a 를 구하는 문제 풀이과정에서 수학적으로 답은 3가지가 나오고 어떤 근거에서 $a = 2$ 라고 언급해야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근거 설명 없이 2로 답을 하였으며 n 번째 날에 새로 소문을 들은 사람의 수에 대한 일

자연계열문항 총평

반식을 유도한 학생은 매우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풀이형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현상을 수리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지와 수학적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가를 물어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식이 주어지면 이를 푸는 것은 어느 정도하는 것 같으나 상대적으로 수식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독해력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